



정미연 소화테레사 作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마르 9,43)

타협이 아닌 선택

오늘 복음에는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리고, 발이 죄짓게 하거든 발을 잘라 버리고,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우린 모두 벌써 불구자들이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실제로 2세기 말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자신의 삶에서 성욕을 배제하고 금욕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거세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오리게네스를 단죄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면서 금욕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신의 몸을 해치며 고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쉬운 길이며 하느님의 창조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 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손이 죄를 지었다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손을 잘라 버린다면 그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되겠지요. 손을 움직인 마음이 문제이지 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은 그만큼의 굳은 결단력을 가지고 죄지를 기회를 피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소한 죄들과 타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지만 그런 마음의 유약함이 우리를 죄 중의 상태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우리 삶의 방향 또한 하느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뜻을 굽히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에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 죄악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 던져 버릴 정도의 각오와 결심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사랑의 실천을 선택하십시오. 타협이 아닌 선택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위한 선택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필문**

이지운 시몬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사이비예수교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신천지 13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사목국장

기성교회에 대한 신천지의 비판

신천지는 기성교회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기독교 세계의 종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교권자들이 종말이 되게 한 것이다. 기독교 세계 중에는 돈을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주고 목사 안수증을 남발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망친 것이다. 그리고 돈을 주고 신학 박사나 목사가 된 자들이 교권으로 성도를 치리(治理)하니, 그들의 목적은 교권과 돈이었다. 교권을 잡은 신학 박사과 목사는 고급 주택과 고급 자가용 등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훈이며 사랑이란 말인가?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십일조와 감사 헌금 등을 내고 있다. 많은 목사들이 이러한 성도들의 어려움과 희생 봉사를 당연시(當然視)하고, 성도들 앞에서 술선수범하여 교회 청소 한 번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신천지 사명자 교육 책자 -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해설 II』, 41쪽)

신천지교회는 새 이스라엘, 하느님 나라를 되찾는 군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만한 비판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교회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영육 보혜사가 있는 교회, 곧 ‘영적 새 이스라엘 지파’인 자신들의 교회에만 하느님의 참 말씀과 계시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세인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천지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자(천군 천사)요, 마귀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독립 군대이며, 6천 년 간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회복시키

는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천민(天民)이라면 우리와 하나 되어야 하며, 이 역사를 함께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신천지 사명자 교육 책자 -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해설 II』, 116쪽)

이만희는 보혜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그러면서 신천지는 ‘보혜사에는 영(靈)의 보혜사인 성령 외에도 육(肉)의 보혜사가 있는데 그 육의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라고 하면서 이만희를 새로운 구세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성령이 공중에 돌아다니며 가르치겠는가? 보혜사 성령은 사람을 통해 가르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대언자 곧 보혜사라 함과 같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대언자요 육의 보혜사이며, 신약성경에 약속한 목자 곧 이긴 자이다.(묵시 2-3장, 10장) 이김으로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를 창설하게 되며(묵시 7장, 12장) 계시록 2-3장에서 약속한 복을 받게 된다. 즉 이긴 자는 영생하는 양식을 받게 되며, 그에게는 심판권과 치리권이 있고,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에게 오시며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정사를 맡게 된다.”(신천지 사명자 교육 책자 - 『진리의 전당: 주제별 요약해설 II』, 115-116쪽) 이만희가 보혜사, 곧 성령이고 약속의 목자, 곧 이긴 자로서 신천지교회의 12지파를 창설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신천지는 이만희가 예수님의 뒤를 잇는 새로운 구세주라고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사이비 예수교의 전형이지요. 그런데 이런 말에 현혹되어 신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청년 신도들이 생기고 있다니 이 일을 어찌면 좋습니까! 



1. 마지막 물 한 방울

찰랑찰랑 차 있는 물 잔은 단 한 방울의 물이 더해지는 순간에 흘러넘칩니다. 넘친 물이 식탁을 어지럽히고, 귀중한 서류를 망치거나 아끼던 그림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 한 방울은 한 방울일 뿐이지요. 좀 더 큰 물 잔을 쓰거나 그 잔에 담을 만큼만 적당히 부었다라면, 아니면 옆에 서류나 그림을 두지 않았더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고, 마지막 물 한 방울은 딱 그 한 방울만큼만 무게와 부피를 더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사회교리 혹은 사회윤리적 가르침은 개인 윤리와 구별됩니다. 개인 윤리가 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 그리고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사회교리는 제도와 법, 사회 구조가 공동선에 부합할 것인지를 묻는 역할을 합니다. 물 한 방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 넉넉한 크기의 물 잔을 구할 것인지, 얼마의 물을 담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사회교리와 사회윤리의 영역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내는 목소리가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분노와 항의와 저주의 목소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상호 경청의 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진지한 자세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물이 잔을 넘게 되는 것이 단 한 방울의 문제로 소

사회교리의 걸림돌 1

박용욱 미카엘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급될 수 없듯이, 사회문제들 역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2.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하는 낮고 겸손한 목소리

평소에는 더없이 점잖고 품위 있는 분이 유독 정치나 경제 같은 사회문제를 말씀하실 때는 몹시 굳어 있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정치, 경제에 관한 토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양한 이해관계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극단적인 쟁투를 피하면서 상생하는 길을 찾는데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과 늘 가르치려 드는 교만한 태도로 못사람들을 질리게 하면서 사회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하는 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겠지요.

같은 맥락에서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교리는 믿는 이의 품위에 걸맞은 태도를 요청할 것입니다. 지난 2004년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가 펴낸 ‘간추린 사회교리’가 첫머리를 치밀한 정세 분석이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데 할애하지 않고 인류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계획에 대해 길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교리가 여러 이데올로기와 이해추구가 각축하는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겠지요. 겸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일수록 낮고 겸손한 목소리로 말할 줄 아는 애덕의 실천, 그것이 오늘날 사회교리의 확산과 실천을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문**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 하느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만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모든 성인들이 당신을 사랑했던 그만큼

성모님이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의 힘을 두 배, 세 배, 천 배로 강하게 하여 주소서.

저의 하느님, 이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그만큼

왜 저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의 영혼과 마음의 진실을 다한 이 바람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그만큼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 에우제니오 드 마제노 (Eugene de Mazenod, 1782 ~ 1861)

원죄 없으신 마리아 봉헌 선교 수도회 설립, 주교,

1995년 12월 3일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정의 수호성인

지혜의 숲

향상

한 젊은이가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자 친구도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걱정 말고 내 말을 잘 들어 두어라. 모든 일이 다시 잘 되어 갈 것이다.”

젊은이의 눈에는 희망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다시 부자가 될까요?”

“아니, 무일푼으로 외롭게 지내는 데에 익숙해질 것이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민수 11,25-29 **제2독서** 야고 5,1-6 **복음** 마르 9,38-43,45,47-48.

화답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루야.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교구장 동정



총대리 동정

9. 29(토) _ 교구 도보성지순례

9. 18(화) ~ 26(수) _ 잘츠부르크대교구 자매결연 50주년 행사

9. 29(토) _ 교구 도보성지순례

잘못된 신심 기도 및 활동에 대한 주의와 권고

1.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이 그리스도교 신심에 반하는 행위라는 교회의 공식입장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암암리에 우리 교구 신자들이 버스를 대절하여 나주를 방문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들께서는 **잘못된 신심 활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구 내 일부 신자들 사이에서 ‘묵주기도’를 가톨릭교회가 정해놓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예 : 묵주기도 신비 1단 중 주님의 기도 후, 성모송 50번이나 100번을 바치고 묵주기도를 50단, 100단 했다는 등)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묵주기도의 정신이 ‘양적으로 많이 바치면 좋다’는 식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묵주기도를 올바르게 바치기를 권고**하며, 묵주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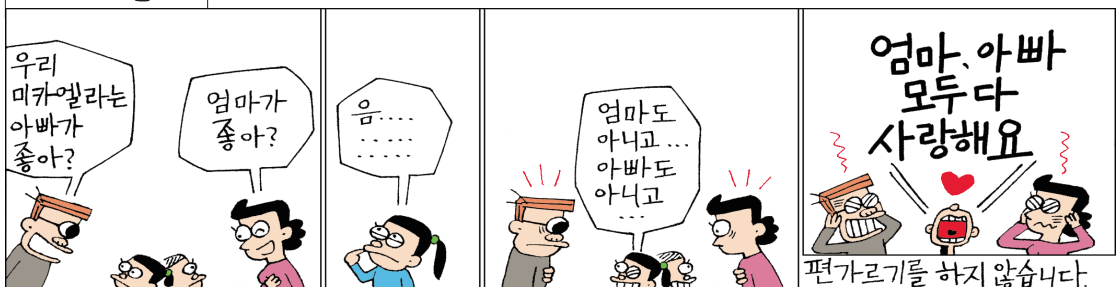


다 함께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나의 육체로 지은 죄가 있다면 통회하고 고해성사를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10월 1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0월 1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1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10.7(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10.6(토) 10:00

내용: 고해성사, 미사, 안수

영성특강: 문봉한(아고보) 신부

서틀: 영남대역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주님과 동행' 성소 피정

일시: 10.13(토) 16:00~14(일) 18:00

장소: 툇핑포교베네딕도 대구수녀원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519-3431

10월 향심기도 소개 피정

일시: 10.13(토)~14(일) / 10.27(토)~28(일)

월모임(심화): 10.27(토) 10:00

장소: 평화계곡피정집(소울스테이)

대상: 기도하고 싶은 분 누구나

문의: (010)3422-7587

베네딕도회 성경 통독 8일 단식 피정

제59차: 10.19(금)~27(토)

제60차: 11.9(금)~17(토)

장소: 성베네딕도회 화순수도원

문의: (061)373-3001 / (010)3540-9001

http://hsosb.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매일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0.10~12 / 10.16~19 / 10.24~26

11.2~4 / 11.6~8 / 11.13~16

문의: 성이시돌피정집, (064)796-9181

교육 | 모집 | 기타

남양성모성지 봉헌 27주년 감사미사

일시: 10.7(일) 11:00

주례: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공동집전: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수에레브 대주교

문의: (031)356-5880

2019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26(금) 10:30, 어린이집 강당

문의: 256-6862

영·유아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일시: 매주 금 10:00~11:00

장소: 1대리구청 강당(계산성당 내)

강사: 10월_이경희(엘리아) 수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프란치스칸 청년회(유폴라) 모집

일시: 8.19(일)~10.3(수)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대상: 만 17세~32세 미만 신자

지원자 O.T: 10.6(토) 14:30

문의: 재속프란치스코회, (010)7459-0242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신입생 모집

기숙형 학력인정 무료 미술대안고등학교

원서접수: 10.8(월)~24(수) / 여학생

자격: 중학교졸업예정, 검정고시합격자

문의: (070)8891-3831 / (031)832-9988

http://www.flowerdaymorning.com

32회 대구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모집

출발: 12.30(일)

설명회: 10.20(토) 14:00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성가요양원 어르신 모집

위치: 칠곡 동명(동명성당 근처)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

매일 미사 봉헌

문의: (054)976-81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8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맥류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태양광 설치 전문기업
(주)사람과 사람들

가정용 · 산업용 · 발전용

류재천(바오로) 010.6437.8698

대구시 서구 국제보상로 208(2층)
대표전화 1588-2981
FAX 053)566-8698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페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학박사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이태운(미카엘) · 김진선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평생교육원
(서부교육청 56호 승인)

※ 우리의 참-됨을 교육합니다.
※ 수강생 수시 모집합니다.

원장 박 태 봉(바오로)

대구시 북구 신암로 22(칠성동1가, 3층)
Tel) 053-254-4004

LACOSTE
라코스테 대구 동성로점

단체복 문의 우대할인
가물릭 신자 10% 할인
최현국(프란체스코)

대구 중구 동성로1길 29-36
☎ 053)427-0747 | 010-7292-7895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여성건강클리닉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성만(이냐시오) 신부
1976년 10월 3일
- 윤광제(다윗) 신부
2010년 10월 4일
- 부(클라우디오) 신부
1930년 10월 5일

행사 | 모임

2018년 제4회 'Concert for Mom'

진로진학 및 성장기 자녀들과
부모의 역할 특강과 토크 콘서트
일시: 10.20(토) 10:00 / 참가비: 1만원
장소: 교구청 별관 4회합실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대천성당 10주년 기념 바자회 초대

일시: 10.27(토) 10:00~21:00
10.28(일) 10:00~18:00
장소: 대천성당 마당 / 문의: 634-9025
바자회 수익금은 성전건립에 사용
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가톨릭미술가회 '사랑의 미술전'

일시: 10.6(토)~7(일)
장소: 만촌1동성당
문의: (010)6772-1194

김옥수 신부 성화 타일전

일시: 10.3(수)~19(금)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갤러리
주제: 태양의 노래 / 문의: 744-1394

4대리구 제4차 울드레아

일시: 10.9(화) 10:00
장소: 포항 오천고등학교 성김대건관 2층
문의: 꾸르실료, (010)3524-2675

1박 2일 치유 피정

일시: 10.6(토) 15:00~7(일) 15:30
성령묵상회: 10.12(금) 13:00~14(일)
신청: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교령 월막)

제2회 교구장기 배드민턴 대회

일시: 10.9(화) 9:00~18:00
장소: 대구시민생활스포츠센터
종목: 오전_혼복, 오후_남복·여복
마감: 9.30(일) / (010)3153-7536
다음카페_대구가톨릭배드민턴연합회

교육 | 모임

제14차 비다누에바

일시: 10.26(금)~28(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40세 미만 미혼
신청: <http://www.dcy.co.kr>
문의: 교구 청년국, (010)7123-5539

성마리아 영어성경대학 수강생 모집

수요반: 15:00 / 금요반: 19:00
장소: 불로성당(수시 접수)
과정: 창세기·마르코·요한 / 월 3만원

신구약 전체를 통독·정독·음독·완독
문의: 981-2035 / (010)2578-5535

신나무골 성지 봉사자 모집

첫 모임: 11.10(토) 15:00
신청: (054)974-3217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바이올린: 화 18:30~19:30
생활영어: (초급)화, (중급)목
성가반주: 수(오전, 오후) 토(오전)
첼로: 목, 금 15:00~18:00
문의: 476-6211(교대역 3번 출구)

전례생활연구회 월례 공부 모임

일시: 10.1(월) 20:00~21:00
장소: 대안성당(중앙로역 4번 출구)
주제: 미사경본 총 지침 이해1
대상: 전례봉사자, 관심있는 신자
문의: (010)3811-2618 / (010)4582-0513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해외 후원자 모집

해외 9개국 빈곤 아동을 지원하고,
9개국 미사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관: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문의: 423-3008(내선 2번)

채용 | 안내

고산성당 사무장 채용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마감: 10.6(토) / 문의: 795-2261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사랑나무의원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하마마트 만촌점 옆)
◆ 말기암 통증/증상 완화
◆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 돌봄
※ 재능 및 기타 자원봉사자 상시모집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 상담/입원 053)217-9500

34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포랑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윤영희 성형외과
•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 서울의대 성형외과 전문의 2명 진료
(원장 윤영희 바오로, 박성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 신축이전
(3호선 어린이회관 역)
T. 053)766-2454 / 2455

백세 젊은이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원장 박 지 훈 (F.하비에르)
대구시 남구 대명로 140 현우패리스상가 3층
053)243-8027 (안지랑역 2번 출구)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 아오스딩, 배성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SM **수맥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

꽃 들메골
건강박사
자연친화적
지하철 2호선 내당역 3번 출구
예약 053)652-5432
이태도 가브리엘, 윤영미 카롤리나

경북온누리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경대병원 청아람아파트 맞은편
T. (053)254-1985
대표약사 김준영(보스코)